

성과학연구협회 성명

민성길 교수 // 성과학연구협회 회장 연세대의 명예교수

### 총신대 반지성(反智性)적 해임안을 철회하라

지난 5월 18일 총신대학교는 신학과 이상원 교수의 수업 내용의 일부를 성희롱 발언이라고 문제 삼아 해임 처분을 내렸다. 2019년 12월 13일 교내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등에서 이미 부형으로 판단된 시안을 12월 19일 관선이사회가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총신대 이처서 총장은 2020년 3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의 불이익을 받거나 학생들이 총장을 인정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징계 제정을 요구했다고 밝힘으로써 징계가 외부의 눈치 보기를 드러냈다.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서 반지성적으로 눈치를 보며 결정된 징계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을 지적하며 다음을 요청한다.

**첫째, 의과학적인 용어를 성희롱의 단어로 주장하는 미흡함을 그치라.**

대학은 대학생을 위한 지성의 강단이다. 초등학교 성교육 시간이 아니다. 동성 간 행해지는 성행위의 문제점을

을 강의하고 있는데 이를 성희롱이라고 지목하면 어찌라는 말인가? 성(性)과학 또는 성(性)윤리 학자들의 많은 용어를 희롱거리로 삼을 것인가? 교수가 같은 내용의 강의를 할 때마다 의과학적인 신체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매번 진심어린 사과를 하란 말인가? 교권 침해를 넘어 학자들의 용어를 오용시키는 미숙한 짓을 그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둘째, 학자의 지적 양심을 2차 가해로 폄하하는 것을 그치라.**

대학교수의 영향력은 그의 학생이 그치지 않는다. 학생들의 삶 전반에 걸치고, 강기가 전해지는 시대 전체에 걸쳐 영향을 끼친다. 학자가 총학생회와 학생자치회의 상식을 넘어선 사과 요구로 인해 올바른 지식 전하기를 멈춘다면 이는 학자의 양심을 저버리는 직무 유기이다. 이상원 교수는 본체로 지목된 강의 내용과 설명을 다자 보를 통해 정확하게 게시하고 동성 간의 성관계에 따른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학자의 양심적 노력을 2차 가해로 폄하하는 행위를 당장 그칠 것을 요구한다.

**셋째, 대상과 내용이 모호한 징계를 즉시 철회하라.**

시민 사회가 징계안이 반복된 것에 항의하여 학교에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는 이상원 교수가 해내 분란 행위로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징계사유를 추가하였다. 교내 징계위원회의 징계 대상이 시민사회로 향한 것인가? 동성 간 성행위가 일으키는 문제점을 설명하는 의과학자들을 징계 대상으로 고려하려 하는가? 대학의 지성이 의심받게 하여 사회전체에 대해 신뢰를 실추시킨 징계위원회의 반지성적 결정이야말로 징계의 대상이 아닌가? 징계의 대상과 내용 모두가 방향을 잃어버린 모호한 징계를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5월 21일  
성과학연구협회

### 이상원 교수의 해임을 대하는 우리의 입장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27인 성명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학교를 섬겨오신 이상원 교수님께 최근 내려진 해임징계로 인해 총신 공동체 안에 다시 큰 아픔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총신대학교를 바라보는 교단신학 교회와 성도들, 한국교회 전체의 우려 앞에서 우리들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교수로서의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우리 신학대학원의 신학적 정체성과 교육의 목적을 다시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고 충실하게 증거할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라고 믿습니다(딤후 2:1-2). 또 우리는 우리 학교가 바른 신학과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고전 10:31-33)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을 실천해야 한다고(갈 2:20) 고백합니다. 우리 신학대학원은 이 고백 위에서 '청교도적 경건성'과 '개혁사상'에 입각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교단에서 사역할 목회자'와, '민족복음화 세계선교에 헌신한 선교일꾼'과, '기독교 문화창달에 기여할 일꾼들을 양성하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무오한 신구약 성경의 진리에 따라 '항상 개혁되는 교회(eclesia semper reformanda)'를 세우기 위해 총신대학교가 지난 1세기가 넘도록 표방해 온 개혁신학의 토대 위에서 연구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대로 삼고 있는 개혁신학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존재로 여기고(창 1:27),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가정의 본래의 모습과 남녀 양성 간의 바른 관계가 타락을 통해 완전히 부패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나타난 애국된 모든 인식들 역시 타락의 결과라고 생각하며(롬 1:26-27), 죄로 인해 발생한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가르치는(엨 1:7) 성경의 진리에 충실한 신학입니다.

다. 우리 신학대학원의 교수들은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도 개혁신학적 입장을 견지하며 교육해 왔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일만은 총의 방편들이 우리 학교의 신학적 정체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원 교수님께서 지난 20여 년 동안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수천 명의 제자들과 후학들을 가르치시며 우리 교단 교회 및 한국교회 전체를 향해 보여주신 신학의 교훈과 신앙의 귀감을 생각할 때, 총신대학교의 구성원들뿐 아니라 우리 교단과 많은 교회들이 이번 사건으로 인한 교수님의 해임을 수용하기 어려운 마음입니다. 그동안 이상원 교수님께서 학교를 위해 기여하신 업적과, 신학대학원의 신학적 정체성, 그리고 향후 신학 교육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이번 중징계를 재고해 주실 것을 이신들께 부탁드립니다.

총신대학교를 사랑하고 염려해주시는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한국교회 앞에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어려움을 통해 총신대학교를 바른 성경적 기준과 가치관 위에 다시 세워주시어, 총신대학교가 교회와 성도들을 바르게 섬기는 사명에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총신대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 학교의 신학적 정체성과 교육의 목적을 더 확고히 지켜가고, 함께 지혜를 모아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이 통치하는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5월 23일

강용산 김광열 김대용 김대혁 김성훈 김성태 김영욱 김요셉 김희석 문병호 박영실 박용규 박철현 박한신 배춘성 양현표 오성호 오태권 윤영민 이관직 이상용 이상일 이흥민 정원배 조호형 (가나다 순)

포커스 - 차별금지법

김원평 교수 // 부산대학교 교수

### 가장 현명한 방안은 강력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

동성애 차별금지법 관련 법제정에 반대해온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김원평 교수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 '성적지향'이 차별금지 사유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적지향이 사제된 차별금지법도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김 교수는 "동성애 옹호 활동을 했던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맡기면, 공권력(헌해배상, 형사처벌 등)으로 동성애를 옹호할 것은 너무나도 명확하다"고 전하고 "차별을 받았는지 조사하는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이기에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그 예로 지난 2013년 김한길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설명하며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은 차별금지법에 있는 차별금지 사유 마지막의 '등'(갑재연 발의안) 또는 '그 밖의 사유'(을원석, 김한길 발의안)에 성적지향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사유에 있는 성별을 젠더(gender)로 해석하고, 젠더에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개정하는 것이 쉽다. 제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해야 하지만, 개정은 공청회가 필요 없다"며 "영국의 경우에 2006년 평등법이 만들어질 때에 성적지향이 명시적으로 들어

있지 않고, 고용에 대해 시행령을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2007년에 고용에 대한 성적지향 차별금지 시행령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2010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명시적으로 들어가는 강력한 평등법으로 개정되었다. 결국 2013년에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다"고 했다.

이러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지만, 일단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후에 개정을 막기는 매우 어렵다"며 "따라서 가장 현명한 방안은 강력하게 한 목소리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다. 그러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목양산책

이효상 // 근대문화진흥원 원장

### 책 읽는 즐거움에 빠지다

코로나 시대, 다들 궁금하지 뭐하고 어떻게 사느냐고 묻는다. 비대면과 차단된 시대를 극복하고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책 읽기'의 즐거움에 푹 빠져 사는 것이다. 좋은 책을 접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도 더 이상 '독백'이 아닌 상호소통이 되고, 거꾸로 좋은 관계에 익숙해진 이들은 비평적인 '독서'로 생명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매일 신문과 성경을 정독하고 책 한 권 정도를 읽으려 한다. 이미 벌어져서 지나간 과거의 시간을 알려 주는 것이 신문(新聞)이라면, 성경은 과거에 쓰여진 책이지만, 사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 우리가 시간을 쓰는 방법에 따라 금도 되고 은도 되는 것처럼 하루의 생활을 신문과 성경으로 기록한 독서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은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인지의 본체는 본인의 선택이다.

신학자 칼 바르트(Karl Barth)는 '한 손에 신문을, 한 손에 성경'을 이라고 말했던가. 신문은 현시대의 삶의 현장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이 현시대의 인간 사회의 모습이다. 이 신문과 책을 통해 인간의 사고관식, 인간의 고통, 사유방식, 본체의식을 캐치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 찾아보려 한다.

독서의 중요성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특히 유아와 청소년의 독서는 그들에게 많은 지적 소산을 안겨 주고 동시에 다양한 창조력을 키우고 풍요로운 감성을 보살펴준다. 하지만 현실은 스마트폰이나 방송 미디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인들의 독서 시간은 하루 평균 6분이라면, TV 앞에서는 2시간 이상이라고 한다.

스마트폰 없이 살아가기 힘든 세대를 '포노사피엔스(phono sapiens)'라고 하는데 혹시 우리는 이미 스마트

폰에 중독된 신인류 '포노사피엔스'는 아닌가. 인문, 사회, 자연, 과학 등 다양한 융합을 통해 시대를 읽는 혜안을 가지고,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책 읽기'이다.

"오직 독서 이 한 가지가 큰 학자의 길을 쫓게 하고, 짐승과 구별되는 인간다운을 만든다."는 다산(栗山) 선생의 말처럼, 선생의 첫 번째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유배 생활 중 그의 방을 책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1,304권의 책을 구비했고 선생의 책 읽는 습이 드러났다. 평생 저술한 500여 권의 책을 봐도 알마나 많은 책 읽기와 연구 집필에 매진했는지를 보여준다.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남양주시는 다산 선생의 일과 정신을 담은 '정약용박물관'에 이어 '정약용도서관'을 개관한다. 국내 6번째 규모의 22만3천 권의 장서를 갖춘 지식의 보물창고(寶庫)이다. 경기도민으로 저랍스터울 정도로 참 아름다운 명품도서관이다. 찾는 이들이 즐거운 명소가 될 전망이다. 그래서 책 읽기는 더욱 깊어지고 즐거워진다.

우리나라 선진들은 일찍이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였다. 집을 나가서는 천하의 뜻있는 벗들과 사귀고 집에 들어와서는 옛 성현들의 책을 읽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다.

신라시대에 관리를 등용할 때에는 그 사람의 독서 범위와 수준을 헤아려 인재를 등용하는 독서삼품고를 설치하여 독서를 권장하였다. 고려에서는 태학이라는 고등 교육기관을 두어 경학(經學)·사서오경을 연구하는 학부)·문학 방면의 책을 강독하게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이미 우수한 종이를 만들고 구텐베르크(Johannes Gutenberg) 성경보다 빠른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만드는 등 인쇄술의 발달로 '지식'과 '자치통감' 등 많은 책들을 간행하였다. 성종 때는 수서원(修書院: 학교와 도서관을 겸한 기관)을 창설하고 역사책을 등사

하고 소장하게 하여 열람하도록 하였다.

책 읽기(독서: 讀書)는 가장 넓은 세계를 가장 손쉽게 경험하고 상상하게 만들어 주는 가장 좋은 스승이자, 자기성찰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삶에 대한 통찰력과 인목을 길러준다. 또한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한다.

우리나라의 책 읽는 문화가 본격적으로 발전한 것은 성리학이 들어온 뒤이다. 성리학이 이념으로 무장한 신 흥시대부계층이 역사담담계층으로 성장해 간 고려 말과 조선 초에 이르러서였다. 이 시대부들은 박지원(休庵)이 "독서를 하면 사(士)요, 정치에 종사하면 대부(大夫)이다."라고 지적한 바와 같이, 평소에는 유가경전과 사문·사서(史書) 등을 읽으며 한문교양을 쌓다가 기회가 닿으면 정치일선에서 활동하는 인물들이었다. 그래서 이들 선비계층은 주입이 독서였고, 독서를 통해 그들의 덕행과 학식을 쌓았던 것이다.

이런 책 읽는 문화는 유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발전하였다. 그들의 독서토론과 연구발표도 자연히 유가적 교육기관인 서당·서원·향교·성균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

조선초는 유학을 건국이념으로 하고 역대의 임금들이 학문을 장려하였으므로 중국으로부터 많은 서적이 수입되고, 국가적인 도서편찬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어 많은 책들이 출판되었다. 민간에서도 수많은 문집들과 사서들이 간행되었다.

또한, 집현전·홍문관·규장각 같은 일종의 도서관 시설이 설치되어 많은 문헌들을 수집, 정리, 보관하여 당시 관료지식인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책 읽는 문화를 천리히 꽃피웠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책 읽는 현실은 어떠한가. 1년간 일반 도서를 한 권이라도 읽는 사람의 비율은 성인이 60%, 학생이 92%로 각각 나타난다. 성인의 40%는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다는 말이다. 참으로 '책 안 읽는 한국인'이다.

1909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독일의 물리화학자 프레드리히 오스트발트는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책 읽기'라는 공통점을 찾아냈다.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며 그 세계는 책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시인 볼테르가 말했던가. 하루 20분만 책 읽기에 투자하면 안 될까. 1년이면 300페이지짜리 책 12권을 읽을 수 있다. 하루 20분 책 읽는 즐거움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 우리의 삶과 지성을 건강하게 일으켜 세워보는 건 어떨까. 건강한 지성의 인생의 코드, 그리 멀리 있지 않다.



남양주시에 정약용도서관이 지난 5월 개관했다.

### “이상원 교수 해임, 동성애자의 핍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

총신84회, 살롬총신, 총신대를사랑하는국민모임 등 집회

총신84회와 살롬총신, 총신대를사랑하는국민모임(총사국), 레인보우리턴즈, 일사각오구국목회지연합 등이 참여한 이상원 교수 해임 반대 집회에서 연인원 원장은 "이상원 교수님은 그동안 퀴어 신학, 동성애 신학이 이단이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밝힌 대한민국의 거의 유일한 신학교 교수님이셨다"며 "동성애 신학이 당연히 이단인데, 그것을 밝혔다는 이유로, 또한 동성애가 신학적으로 분명한 죄임을 알리셨다는 이유로 동성애자들에게 표적이 됐다"고 했다.

이러 "이상원 교수의 강제 해임 사건은 동성애자 혹은 동성애 옹호자의 핍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이상원 교수의 강의를 사라져선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달 1회씩 이상원 교수의 강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또 "학교 대학위원회는 이상원 교수의 강의를 논란이 일자 강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강의가 성경적, 의학적으로 정당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소지가 없다고 이미 판단했다. 그러나 이 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총신대 관련 이사회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유라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이상원을 해임하는 결정까지 이르게 됐다"며 "이같은 결정을 규탄하며 동성애 문제점에 대해 설명한 강의를 성희롱, 성차별로 판단한 총신대 이사회의 해임 철회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원 원장은 "동성애의 위험성,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에 끼치는 동성애의 해악을 알리는 많은 인물들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공격은 우리를 더 결속시키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집회엔 총신84회와 살롬총신, 총신대를사랑하는국민모임(총사국), 레인보우리턴즈, 일사각오구국목회지연합 등이 참여했다. 다음은 당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

총신대는 이상원 교수 해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2020년 5월 18일 총신대학교는 이상원 교수의 '인간론과 종말론', '생명과과학과 생명윤리' 강의에 있어, 동성애의 문제점을 설명한 부분에 대해 '성희롱, 성차별'으로 판단하고 이상원 교수 해임을 결정하였다.

예초 학교대책위원회는 이상원 교수의 강의에 대해 논란이 일자 강의내용을 검토하여 그 강의가 성경적, 의학적으로 정당하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소지가 없다고 이미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총신대 관련 이사회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라는 모호한 이유를 들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결국 '이상원 교수 해임'이라는 결정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레인보우리턴즈 이하 총신대학교와 한국교회를 이끄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결정을 규탄하며, 2020년 5월 22일 이상원 교수의 해임 건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게 되었다.

기독교 세계관과 성경적 가치관에 의거, 동성애 문제점에 대해 설명한 이상원 교수의 강의를 '성희롱, 성차별'로 판단한 총신대 이사회의 해임 결정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존 칼빈과 개혁주의신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총신대학교가 대한민국에 불어오는 동성애의 흐름을 과감히 끊어내고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이상원 교수의 해임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

총신대학교의 재단이사회는 금번 시안을 통하여 학교의 설립이념을 명확히 인식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중심으로 세우신 총신대의 개혁주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2020년 5월 23일